

## 김 형 관

사소한 일상에서 삶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환타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물이나 재료, 관계에 관심이 있다.

일반적으로 'box tape'라고 불리는 매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다양한 색상과 색채라는 것이 정보와 시스템 없이 시기별로 생산될 때마다 다르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색상이라는 것이 분류하기 위한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색상의 불규칙성, 구체적인 대체색상이 필요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색상들이 생산 되는 것은 도시 시각물 들의 형태와 모습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색상의 정확함 보다는 분류를 위한 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로 거리의 지시물, 간판, 안내문, 지도 등을 보면 분류를 위한 다수가 생각하는 ('바다'='파랑') 색의 합의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생산시스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눈대중, 감각들에서 비롯된 제품들의 실패 혹은 효율의 합리성, 사소한 것에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집착까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라 흥미롭고 경이롭다.

작업의 출발은 (a cup, 2006)부터였는데 공간에 특정한 오브제를 놓고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림자와 빛의 시간을 측정하듯 색상테이프로 면을 덮어 나갔다. 일종의 옵티컬(Optical)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의 관한 작업이었다. 이후 노동 강도는 높지만 집중이 생기는 이미지를 찾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미소녀가 나오는 부분을 한 화면에 가득 넣어서 (mode#1, 2007), 강아지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mode#2, 2007), 운동화의 특징들을 모은 광고사진들만을 모아 포화상태의 정물화를 제작하였다. 소비와, 이미지에 대한 포화상태, 화려하지만 빈약한 삶에 대한 공허함을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 'Before Sunset' 2007을 하였다. 이후 현재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을 찾아 70~80년대 문양과 패턴, 건축적 구조양식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mode#3, 2008) 작업을 진행시켜가면서 세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송례문 방화사건으로 송례문이 불타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untitled#1, 2008)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던 송례문이 화염속으로 사라져가며 불타는 장면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 뒤로 현재까지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70~80년대 문양과 패턴들이 남아있는 건축양식에 관심을 갖고 버내쿨러 vernacular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모으고 있으며, 평면작업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테이프 속에 색상과 패턴들을 넣어 생활 속에서 다시 기억을 유추하고 환기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림1. 무지개벽화(성산시영대우아파트벽화,마을미술프로젝트부분), 아크릴,스텐, 2010

그림1.마포의 아파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인정과 주민들의 교육시설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벽면장식의 일부이다. 물감의 원색을 그대로사용하여 이질감과 기존건축이 가지고 있는 노후 된 이미지와의 대비를 노렸다.



그림2.사소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 ('자치구역1-130') 대학로 문화예술위원회 구청사, 2010

그림2. '사소하거나...'의 파란 공간은 구 문화예술위원장의 집무실이다. 포장용 임시 보호테이프로 공간을 덮어 놓으므로써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길 원했다.



그림3.교집합(구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관설치전경), colored tape , 60 x 10m,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치한 신도림역의 특성은 활발한 유동인구와 외부로의 유입이 활발하여 상업적인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가교적 특성이 있는 공간이다. 기하학적인 곡선과 직선, 색과 면의 만남으로 역동적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그림4.untitled,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122.5x84.5cm, 2010

2003년부터 모으기 시작한 성매매 전단지 속 일본의 성인물 배우와 중국 산수화를 배경으로 만든 사이버 팜플렛 제조방식으로 재현하여 만든 그림이다.



그림5.untitled(아트스페이스 꿀, 설치예상도), colored tape on vinyl, 각 180×59, 120×310cm, 2010

그림5.이태원 '아트스페이스 꿀'에서 간판을 이용한 이미지 작업이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화재를 모티브로 하여 조합한 이미지를 시각화 하였다. 조명이 투과하여 테이프의 색상들이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보이도록 하였다.



그림6.untitled,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130×180cm, 2009

그림6. 서울 도심재개발 지역의 건축물에 나타나는 입면부(파사드)의 형태들은 미묘하게 다르거나 비슷하다.



그림7. 'untitled( '휘경, 사라지는 풍경' 설치장면); colored tape통의동 보안여관, 2009

그림7. 종로구 통의동 '보안여관'의 타일벽면은 80년대 유행하던 붉은 벽돌의 파사드로 되어 있다. 기존의 건축물에 재개발을 앞둔 휘경동 지역의 파사드 이미지를 수집하여 색테이프를 리모델링 한 작업이다.



그림8. 'mode#4,5,6',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118x186cm, 2009

그림8. 골목길 후미진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각종 포스터, 홍보물들을 섞어 유럽의 종교화들 처럼 삼면화로 제작하여 제례적 성격이 부각되도록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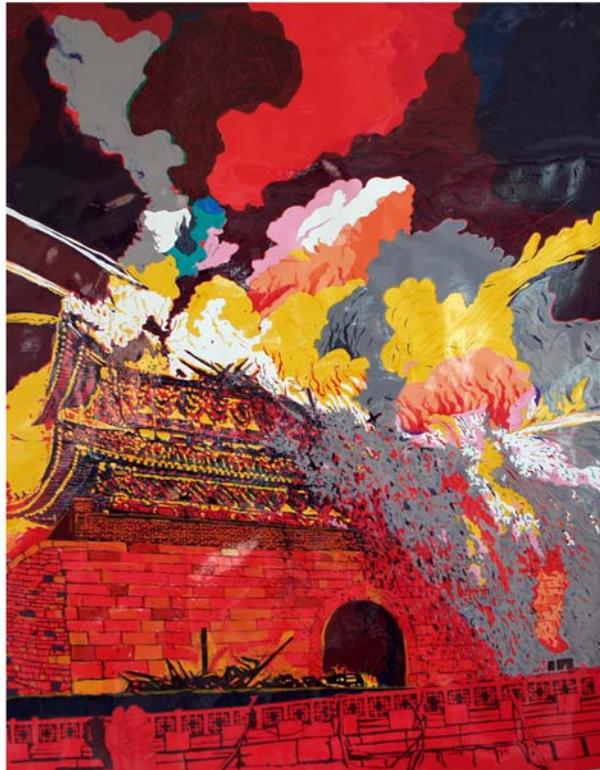


그림9, 'untitled',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140×107cm, 2008

그림9.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얇은 비닐 몇 장의 두께로 재현한 풍경화.



그림10, 'mode#3',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107×150cm, 2008

그림10. 각종문양과 재료들로 만들어진 가옥 구조와 형태들의 공허한 반복과 울림.



그림11, 'more than this#3',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118x180cm, 2009



그림12, 'more than this#1',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118x180cm, 2009

그림11,12. 도시주거문화의 과정이 필연적 진화의 측면이라면 성장과 경제발전, 소비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현재의 기억, 사건에 대한 이미지들을 모아 제작한 평면작업.



그림13, mode#2,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73x103cm, 2007



그림13, mode#2, ,colored plastic tape on paper, 73x103cm, 2007

그림12,13. 소비사회에서 색상만큼이나 다양한 캐릭터의 출현은 미디어의 양적 폭발과 더불어 급속도로 팽창해 갔다. 쉽게 접하는 이미지들의 소유와 소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그림14, a cup, colored plastic tape on table demsions variable, 2006

그림14. 테이프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초기 작품이다.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공간을 그리는 작업이었다. 서서히 반복되어 가지만 결국에는 색띠로 남고, 그림자를 만들었던 사물(컵)은 사라져 공간의 표시만 남기는 작업으로 테이프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다.